〔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4, No. 2 (2000) p.141~151

# 수유에 적합한 임부복 트임에 관한 연구

전 정 희 · 김 여 숙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 Desirable Slitted Area on Maternitywear for Easy Breast-feedings

**Jeonghee Jeon · Yeosook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1999. 2. 3 접수)

**Abstract**

Some suitable areas for slits were examined from maternitywear, including maternitybrassiers for breast-feedings. The 4 areas for slit were decided and discussed. Of the 4 slitted areas that the author decided, the responses for preferable slits were collected from both 117 pregnanted and 127 breast-feeding women through interview questions with a questionnaire. From above comprehensive backgrounds, maternitygarments and maternitybrassiers were made and worn individually prior to their evaluations for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Some results were obtained from our observations. A slit on center-front areas was shown to be desirable through a questionnaire with convenient feelings when maternitybrassiers were worn. In maternitygarments, a slit under breast from interview questions seemed desirable, and did to have same responses when they were worn because it was proven to be easy for breast-feedings. Our observations indicated that maternitygarments and maternitybrassiers with the similar positioning of slit were preferable and also convenient when they wore.

***Key words***: maternitywear, maternitygarment, maternitybrassier, slit; 임부복, 임부용 브래지어, 트임

## I. 서 론

여성은 일생동안 사춘기,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갱년기의 3대 위기를 맞게 되며, 그 중에서 결혼으로 시작되는 가정형성기의 여성 대부분이 경험하게 되는 임신과 출산에 의해 생리적, 신체적으로 광범위한 변화 및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 기간은 짧지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고, 체형변화가 현저하므로 특수한 형태의 의복이 요구된다.

임부복(Maternitywear)은 임신기간과 출산 뒤에도 착용하는 의복으로써 임신기간에는 변화해 가는 체형을 눈에 띄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유기간에는 수유가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는 미적인 요소와 함께 개성을 살리고, 유행에 맞는 패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여성은 생활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임부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옷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진출로 직장생활을 하는 임부도 많아져 사회활동에 적합한 임부복을 원하게 되었고, 임부복

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졌다. 또,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모유수유 우수병원을 지정하는 등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어(한겨레신문 편집부, 1997) 모유수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판 임부용 브래지어도 가슴둘레 사이즈와 캡의 사이즈를 달리하고, 캡주변에 트임을 주고 있으며,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정경화 · 최혜선, 1996).

이렇게 임부의 소비욕구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판되고 있는 임부복은 스타일, 패션성, 사이즈, 가격 등이 다양하지 못하고(이은영, 1994), 수유에 대한 고려는 브래지어의 개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임신한 여성을 보호받는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은영, 1994)과 임부복 착용기간이 짧으므로 인하여 임부복 구입이 낭비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산부의 체형은 출산 후 6개월 또는 수유기간이 끝나야 회복되며, 따라서 임부복은 회복기 또는 수유시기에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지만, 시판 임부복에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전정희 · 김여숙, 1997).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유에 적합한 임부복의 트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수유를 위한 임부복의 트임을 분석하고, 임부복 착용실태와 외의와 브래지어의 트임부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를 제작 · 착의 실험을 실시한 후 이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수유에 적합한 임부복의 트임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유시의 의복과 브래지어의 불편한 점을 조사 ·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임부용 브래지어나 임부복의 연구 · 개발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하며, 브래지어 및 외의에서 수유시 적합한 트임부위에 대한 제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접적 자료로써 임부용 브래지어 및 임부복 제작업체에 실용적인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임부복의 트임

수유는 매일 몇 번이고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수유부는 매번 옷을 열어 유방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수유를 위한 임부복은 유방을 드러내기 쉬워야하고, 끝마치면 곧 원상태로 되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남성의 소변용 개구부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여성의 수유나 남성의 소변 시에, 필요한 부분만을 꺼낼 수 있으면, 입고 있는 옷을 벗을 필요가 없어진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위를 넓고 크게 여는 것으로 의복의 경우는 신체의 해당되는 부분에 트임을 두면 필요할 때, 이를 열어 트임을 넓고,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트임은 여는 방법에 따라 4가지로 분류(深作光貞 · 村田仁代, 1994) 할 수 있다.

· 걷어올려 열기: T셔츠나 스웨터의 옷자락을 걷어 올려서, 아래에서부터 유방을 꺼내어 수유하는 것으로, 이것은 복부를 드러내게 될 뿐만 아니라 수유 중에 걷어올린 부분이 유아의 얼굴 위로 흘러내릴 수 있어 불편하다.

· 끌어내려 열기: 고대 그리스의 키톤이나 인도의 사리 및 한복과 같이 앞을 깊게 여미는 의복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느슨하게 끌어내려, 끌어내린 부분을 겨드랑이쪽으로 밀어내어 유방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리의 경우는 끌어내린 천을 아래로 밀어내고, 한복의 경우는 끌어내린 부분을 밖으로 밀어내며, 키톤의 경우는 신체의 중앙으로 밀어낸다.

· 중심에서 나누어 열기: 남성의 바지에서 개구부를 신체의 해당부분에 오게 하고, 중심에서 나누어 열면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유방의 융기가 크기 때문에 그 위에 트임을 가져오면,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여성다움의 미감을 손상시킬 수 도 있다.

· 절개하여 열기: 꼭 맞는 여성 의복에 사용하는 것으로, 현대의 여성복은 신체의 선을 중시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의복을 느슨하게 해서 유방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느슨하게 하려는 부위를 절개하여, 그 위쪽을 리본이나 끈으로 묶어 두고, 수유때 이를 풀어 느슨하게 내리도록 한다.

#### 1) 브래지어의 트임

유방은 유두주변을 제외하고는 무근육으로써 근본적으로 피부에 의해서 지지되며, 유방의 피부표면

에 가까이 드러나 있는 혈관이나 동맥, 골격부분은 어떠한 압력에도 극도로 민감하여 적은 압력도 임부에게는 급속한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임부의 민감한 부분의 압력집중을 제거하고 그것을 신체의 덜 민감한 부분으로 분산시켜서(정경화 외 1인, 1996) 유방의 형태변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임부용 브래지어에 대해 田中道日(1994)은 임신과 수유에 의한 유방용적의 증대는 유방을 흉벽에 연결하는 조직이나 피부건강을 저해하므로 브래지어의 착장에 의해 응력집중을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임을 여는 네 가지 방법을 브래지어에 적용해 보면, 걷어올려 열기 및 끌어내려 열기는 유방을 강하게 압박하게 되는데, 수유로 인해 유방용적이 커져 있음으로 압력집중이 가중된다. 중심에서 나누어 열기는 남성의 소변용 개구부와는 달리 여성의 유방은 두 개이고, 앞중심에서 여는 것은 필요부분의 정면을 연다기 보다는 유방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측면을 여는 것이다. 따라서, 중심에서 나누어 열기는 앞중심을 여는 동시에 좌우로 열리면서 수유하지 않는 유방도 드러나는 불편이 있다. 절개하여 열기는 유두주위를 둥글게 절개한 것으로 브래지어의 어깨끈과 가슴의 밴드는 고정한 채로 캡만을 열도록 한다.

수유부의 브래지어에서 유방을 드러내기 위한 트임의 부위를 고려해 보면, 걷어 올려 열기나 끌어내려 열기 및 중심에서 나누어 열기는 부적당하며, 떼어서 열기가 바람직하다. 떼어서 여는 위치는 上·下·內·外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어깨에서 한 쪽씩 내려 여는 상단트임, 앞쪽의 흉부 중앙을 열어 비스듬하게 밖으로 여는 내측트임, 겨드랑이에서 가슴 중앙쪽으로 여는 외측트임, 유방의 아래쪽을 들어올리는 하단트임이다.

2) 외의의 트임

양복에서 여성의 외의가 좌측 여밈인 것은 이용하기 쉬운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인데, 아기를 왼손으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다. 또, 인간의 심장은 좌측에 있으므로 어머니의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는 왼쪽으로 안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도 한다. 즉, 왼손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수유도 보통 왼쪽 젖부터 하게 된다. 따라서, 의복의 왼쪽 앞가슴을 벌리는 좌측 여밈이 좋다. 또, 내의와 외의를 겹쳐 입는 경우 내의와 외의의 개폐부위가 서로 어긋나면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가 불편하며, 개폐부위가 서로 인접하면 편리해진다.

따라서, 수유시 착용하는 외의는 브래지어 트임과 유사한 부위에 트임을 주어야 한다. 즉, 외의의 트임은 유방을 드러내기 용이하고, 브래지어 트임부위와 인접한 상단트임, 내측트임, 외측트임, 하단트임으로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설문조사

1)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문헌연구(深作光貞 외 1인, 1994) 및 수유 중인 의류학과 대학원생과의 토의를 거쳐 작성한 후, 수유 경험이 있는 의류전공자 5명의 토의를 거쳤다. 수유를 위한 트임은 수유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지만, 이를 임부복에 적용시키려는 것으로 임부에게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내용은 임부에게는 유방보정 능력과 땀흡수 등의 쾌적성 및 미적인 면을 중심으로, 수유부에게는 수유에 불편한 점을 중심으로 설문을 제작하였다. 설문내용은 속옷 착용실태에 관한 것, 임부복 형태에 관한 것, 임부복 트임에 관한 것,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항목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네 명의 연구 보조자가 1998년 7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임부와 수유부 300명을 대상으로 일 대 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작성된 설문지를 기초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끝낸 임부 및 수유부 개개인에게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방문한 의료기관은 창원시와 마산시의 보건소와 산부인과 및 소아과로 편의 선정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료분석

설문지 총 300부 중 무응답이 많거나 부호화 과정

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5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임부 117명, 수유부 127명이 응답한 244부의 설문지를 자료처리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26세에서 30세 사이가 69.7%이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녀는 두 명인 경우가 50.8%였다. 임부는 임신 5~7개월인 중기가 50.4%, 임신 4개월 이하가 19.7%, 8개월 이상이 29.9%였다. 수유부는 출산후 1년 이하가 84.2% 이다. 수유부의 58.2%가 6개월 이상 수유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임부의 59.0%는 출산 후 모유를 수유할 계획으로, 모유수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분석과 $\chi^2$-test를 실시하였다.

## 2. 착의실험

1) 피험자의 선정

착의실험을 위한 피험자는 임신 7개월의 임부 한 명과 출산 후 6개월의 수유부 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유시 트임부위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수유부는 출산과 수유경험이 있는 의류학과 대학원생으로 하였고, 임부는 비슷한 체형과 연령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및 신체치수는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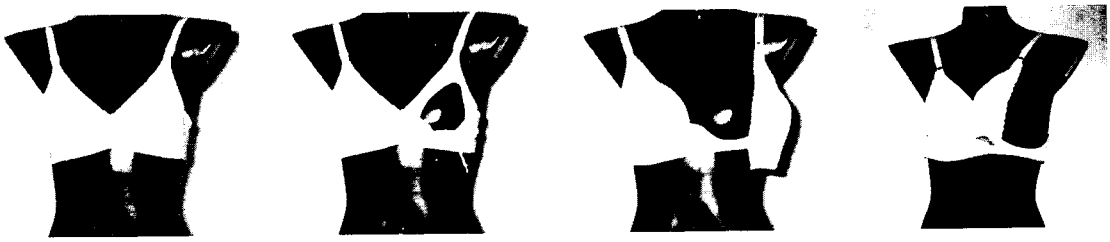
| 항목 \ 조사대상자 | | 임부 | 수유부 |
|---|---|---|---|
| 일반적 특성 | 나이 | 29세 | 28세 |
| | 임신 회수 | 두번째 | 첫번째 |
| | 직업 유무 | 없음(주부) | 있음(대학원생) |
| | 임신 월령 | 7개월 | · |
| | 자녀의 월령 | · | 6개월 |
| | 수유의 계획기간 | 6개월 | 12개월 |
| 신체치수 | 신장 | 164cm | 161cm |
| | 가슴둘레 | 89cm | 88.5cm |
| | 허리둘레 | 90cm | 70.5cm |
| | 엉덩이둘레 | 94.5cm | 88.5cm |
| | 유장 | 23cm | 25cm |
| | 앞길이 | 41.5cm | 37cm |
| | 어깨넓이 | 12cm | 10.5cm |
| | 윗팔둘레 | 26.5cm | 27cm |
| | 목둘레 | 35.5cm | 37cm |
| | 등너비 | 34cm | 33.5cm |
| | 가슴너비 | 31cm | 31.5cm |
| | 유두간격 | 16cm | 18.5cm |

2) 임부복의 제작

(1) 브래지어의 제작

브래지어의 트임은 떼어서 열기가 바람직하며 떼어서 여는 위치는 上·下·內·外가 가능하다. 이 중 下는 유방의 용적에 의한 중력을 고려할 때 유방의 보정기능이 약하며(정경화 외 1인, 1996), 제작 기술상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下의 위치를 제외한 상단트임, 내측트임, 외측트임의 세 종류를 선정하였다. 또한, 트임있는 브래지어와 시판되는 일반용 브래지어를 비교하기 위해 뒤트임 브래지어를 착의실험 대상에 포함시켰다(그림 1 참조).

평상시 착용하던 브래지어와의 동일한 느낌을 주고자 가능하면 시판 브래지어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외측트임 브래지어는 시판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작



a. 뒤트임 브래지어 b. 상단트임 브래지어 c. 내측트임 브래지어 d. 외측트임 브래지어

[그림 1] 착의실험에 사용된 브래지어의 트임종류

a. 트임없는 외의 b. 내측트임 외의 c. 외측트임 외의 d. 하단트임 외의

**[그림 2] 착의실험에 사용된 외의의 트임종류**

하였고, 뒤트임과 상단트임 및 내측트임은 시판용 브래지어를 사용하였다. 제작한 브래지어는 소재가 면인 일반용 브래지어를 이용하여, 캡과 뒤의 밴드는 그대로 사용하고, 앞가슴의 밴드부분은 면 머슬린으로 제작하고, 트임부위에는 스냅으로 처리하였다.

(2) 외의의 제작

수유를 고려한 외의의 트임부위는 브래지어의 트임부위와 유사한 유방의 上·下·內·外의 네 종류를 1차 제작하였다. 이를 수유부에게 착의시킨 결과, 상단트임은 유방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고, 어깨의 여밈 부분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수유 후 옷을 여밀 때 매우 불편하였다. 따라서, 상단트임을 제외한 내측트임, 외측트임, 하단트임 세 종류와 트임이 없는 한 종류의 외의를 2차 제작하였다. 또한, 트임있는 외의와 일반적인 외의를 비교하기 위해 트임없는 외의를 착의실험 대상에 포함시켰다(그림 2 참조).

외의는 트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를 없애고자, 칼라와 소매가 없는 A라인의 단순한 형태를 선택하였다. 또한, 머슬린 등의 실험용 소재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면 메리야스직의 임부가 선호하는 짙은 청색 세로 줄무늬를 사용하였다(오희선·나미향, 1994).

3) 착의실험 방법 및 자료처리

임부와 수유부에게 네 종류의 임부용 브래지어 및 네 종류의 외의를 각각 하루씩 착용하게 한 후, 착용시의 편리한 점·불편한 점이나 느낀 점에 대해 심층 면접법을 이용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수유부의 착의 실험기간은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트임부위에 따른 수유시의 장·단점을 조사하였다. 임부의 착의실험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착용시의 바스트 업 기능, 결림, 땀 흡수 등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에 대한 착용시 평가를 실시하였다. 착의방법은 모유만을 수유하는 수유부에게 네 종류의 브래지어 및 네 종류의 외의를 각각 하루씩 착용하고, 수유를 실시케 한 후 그 의견을 들었다. 임부에게도 네 종류의 브래지어 및 네 종류의 외의를 각각 하루씩 착용케 한 후 그 의견을 들었다.

브래지어 트임부위와 외의 트임부위가 인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유부에게 앞트임 있는 브래지어의 세 종류와 앞트임 있는 외의의 세 종류를 각각 번갈아 가면서 2일씩 착용케 하여 수유하면서 느낀 점을 최종적으로 토의하였다. 착의실험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이다. 자료는 자유 구술한 것을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 Ⅳ. 연구결과 및 토의

### 1. 설문조사의 결과

1) 브래지어의 착용실태와 착용시 불편한 점

브래지어의는 임부의 경우, 79.5%인 93명이 일반용 브래지어를, 15.4%인 18명이 임부용 브래지어를 착용하였다. 임부용 브래지어의 착용율이 낮은 이유는 유방의 용적과 중량이 최대상태인 임신말기(정경화 외 1인, 1996)의 조사대상자가 3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수유부의 경우, 33.9%인 43명이 일반용 브래지어를, 58.3%인 74명이 임부용 브래지어를 착용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수유부가 임부용 브래지어를 착용하였으며, 임부보다 수유부의 경우가 수유를 고려하여 임부용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브래지어 착용시 불편한 사항은 <표 2>와 같이 임부의 경우, 일반용 브래지어의 착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가슴둘레 및 캡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가 응답자의 49.5%이다. 이러한 결과는 속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다는 선행연구(오희선 외 1인, 1994)와도 일치하였다. 그 외 불편한 점으로는 바스트 업의 기능이 약하다(23.7%), 땀의 흡수가 잘 안된다(11.8%)로 나타났다. 임부용 브래지어의 착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바스트 업 기능이 약하다(33.3%), 땀의 흡수가 잘 안된다(27.8%)로 나타났다.

수유부의 경우, 임부용 브래지어 착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개폐부위가 불편하다(41.9%)가 많이 나타났다. 개폐부위가 불편하다는 것은, 시판 임부용 브래지어의 대부분이 상단트임으로 외의가 내측트임이나 상단트임이 아닌 트임이 없거나, 트임부위가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유부는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개폐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용 브래지어 착용시 불편한 점으로 땀의 흡수가 잘 안된다(48.8%)가 많았다. 이것은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손희순(1991)의 연구결과에서 브래지어의 불만족도가 높은 사항의 첫째가 '땀 흡수가 잘 안된다'와 일치하였다.

2) 수유시 불편한 점

수유는 매일 몇 번이고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그때마다 옷을 열어 유방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의복의 트임이나 여밈이 수유를 고려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수유시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수유부의 응답결과는 <표 3>과 같이 수유시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52.8%)와 유방 및 복부가 완전히 드러남(35.4%)등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가 불편한 것은 회복기에 있는 산모가 하루에도 6~7번씩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복부 및 유방이 완전히 노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모의 연령이 25세~30세의 젊은 여성임을 고려할 때, 노출된 여성의 성적심

〈표 2〉 브래지어의 착용시 불편한 점 (n=228)

| 착용시 불편한 점 | 임부 | | 수유부 | | 계 |
|---|---|---|---|---|---|
| | 임부용 | 일반용 | 임부용 | 일반용 | |
| **① 땀의 흡수가 잘 안된다** | 5(27.8) | **11(11.8)** | | | 37(16.2) |
| **② 사이즈가 맞지 않다** | 3(16.7) | **46(49.5)** | | **21(48.8)** | 49(21.5) |
| ③ 바스트 업 기능이 약하다 | 6(33.3) | 22(23.7) | 4( 4.0) | | 34(14.9) |
| ④ 유두가 비친다 | | 8( 8.6) | 7( 9.4) | 2( 4.7) | 19( 8.3) |
| ⑤ 젖이 흐른다 | | | 10( 7.4) | 4( 9.3) | 23(10.1) |
| **⑥ 개폐부위가 불편하다** | | | **31(41.9)** | 13(30.2) | 34(14.9) |
| ⑦ 브래지어가 아기얼굴에 닿는다 | | 6( 6.4) | 22(29.7) | 3( 7.0) | 22( 9.7) |
| ⑧ 기타 | 4(16.7) | | | | 10( 4.4) |
| 계 | 18(100) | 93(100) | 74(100) | 43(100) | 228(100) |

( ): %

〈표 3〉 수유시 불편한 점 (n=127)

| 불편한 점 | 빈도 |
|---|---|
|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 | 67(52.8) |
| 옷 또는 브래지어가 아기에게 닿는 것 | 5( 3.9) |
| 젖이 흐름 | 10( 7.9) |
| 복부 및 유방이 완전히 드러남 | 45(35.4) |

( ): %

불이 산모에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적인 유교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수유시 유방을 드러내기 쉬우면서도 유두 이외의 부분을 감출 수 있는 브래지어 및 임부복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브래지어 트임의 선호도

수유가 용이한 브래지어로서 뒤트임, 상단트임, 내측트임, 외측트임의 네 가지 트임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표 4>와 같이 임부 및 수유부 모두가 내측 트임의 브래지어(39.3%)를 선호하였다. 이는 수유시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가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외측트임의 브래지어(27.9%)와 상단트임의 브래지어(27.0%)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유시 트임부위로 유방을 감출 수 있고, 유방의 노출부분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4〉 브래지어 트임의 선호도 (n=244)

| 문항 | 뒤트임 | 상단트임 | 내측트임 | 외측트임 | 계 |
|---|---|---|---|---|---|
| 임부 | 7 | 38 | 49 | 23 | 117 |
| 수유부 | 7 | 28 | 47 | 45 | 127 |
| 계 | 14(5.7) | 66(27.0) | 96(39.3) | 68(27.9) | 244(100) |

( ): %

4) 외의 트임의 선호도

브래지어의 트임을 고려하여 세 종류의 트임있는 외의(내측트임, 외측트임, 상단트임)와 트임없는 외의를 제시하고,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표 5>와 같이 수유시 외의로는 임부 및 수유부 모두가 하단트임 외의(40.2%)를 선호하였다.

〈표 5〉 외의 트임의 선호도 (n=244)

| 문항 | 트임 없음 | 내측트임 | 외측트임 | 하단트임 | 계 |
|---|---|---|---|---|---|
| 임부 | 3 | 33 | 39 | 42 | 117 |
| 수유부 | 0 | 41 | 30 | 56 | 127 |
| 계 | 3(1.2) | 74(30.3) | 69(28.3) | 98(40.2) | 244(100) |

( ): %

이는 수유시 트임부위로 유방을 감출 수 있어 유방의 노출부분이 적었다. 또한, 가슴부분이 겹쳐있기 때문에 유두가 비치지 않고, 젖의 흐름을 감출 수 있어서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트임없는 외의를 수유부는 선택하지 않았고, 임부도 세 명만이 선택하였다. 이는 트임없는 임부복 즉, T셔츠나 스웨터 등의 옷자락을 걷어올려 수유를 하게 되면, 복부가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유 중에 걷어올린 부분이 유아의 얼굴위로 흘러내릴 수 있어 불편하기 때문이다.

5) 외의 트임에 따른 브래지어 트임의 선호도

외의 트임에 따른 브래지어 트임의 선호도는 <표 6>과 같이 외의에서 내측트임을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도 내측트임(39.4%)을 선호하였으며, 외측트임을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도 외측트임(55.9%)을 선호하였다. 또한, 하단트임을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는 내측트임(51.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외의 트임의 선호도에 따른 브래지어 트임 선호도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외의와 브래지어의 트임은 서로 인접한 것을 선호하였다. 이는 외의와 브래지어의 트임부위가 서로 인접하면 유방을 드러내기가 편리하고,

〈표 6〉 외의 트임에 따른 브래지어 트임의 선호도(n =227)

| 브래지어트임 / 외의트임 | 상단트임 | 내측트임 | 외측트임 | 계 |
|---|---|---|---|---|
| 내측트임 | 20(30.8) | 37(39.4) | 5( 7.4) | 62(27.3) |
| 외측트임 | 20(30.8) | 9( 9.6) | 38(55.9) | 67(29.5) |
| 하단트임 | 25(38.5) | 48(51.1) | 25(38.5) | 98(43.2) |
| 계 | 65(100) | 94(100) | 68(100) | 227(100) |
| $\chi^2=46.252^{***}$ | | $df=4$ | | |

*** $p<.001$, ( ): %

어긋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 2. 착의실험의 결과

1) 브래지어

상단트임, 내측트임, 외측트임 브래지어의 세 종류와 일반적인 브래지어인 뒤트임 브래지어를 수유부 및 임부에게 착용하게 한 후, 착용시의 편리한 점 및 불편한 점이나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뒤트임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수유시 브래지어를 벗는 경우가 아니라면, 브래지어를 유방 위로 걷어 올리거나 유방 아래로 끌어내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된다. 위로 걷어올리면 브래지어의 밴드부분이 유방의 상단에 위치하게 되어 유방의 상단을 강하게 압박하며, 아래로 내리면 유방용적이 큰 경우 끌어내리기가 어렵고 또한, 억지로 끌어내리는 경우, 어깨끈과 캡의 내측이 심한 긴장감을 주게되어 브래지어의 형태변화 뿐만 아니라 수유부의 어깨 결림이 수반되었다.

상단트임 브래지어는 연결부분이 고리로 되어 있고, 유두만 노출되어 유방의 노출부위가 적었다. 그러나 고리와 내려오는 부위가 아기얼굴에 닿고, 상단트임 부위의 연결고리로 인하여 압박감이 생기며, 캡의 부위가 얇아 바스트 업 기능이 약하다.

내측트임 브래지어는 유방을 드러내기 쉬웠으며, 하부밴드로 인해 바스트 업의 기능이 강했다. 캡 두께를 자유로이 제작 할 수 있어 적당한 두께인 경우, 젖의 흐름을 방지하며, 유두의 비침을 막을 수 있고, 유방의 흔들림을 방지 할 수 있어 좋게 평가되었다.

외측트임은 유방의 노출이 적고, 유방을 드러내기 쉬웠으며, 또한 내측트임 브래지어와 같이, 하부밴드로 인해 바스트 업의 기능이 강하고, 캡 두께를 자유로이 제작 할 수 있어 적당한 두께인 경우, 젖의 흐름을 방지하며, 유두의 비침을 막을 수 있고, 유방의 흔들림을 방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측트임의 여는 부위가 측면에 있어 늑골 측면상의 개폐부위가 결린다.

임부는 유방 또는 유두만을 노출시켜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착용상의 느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단트임은 연결고리에 의한 압박감이 생기며, 내측트임과 외측트임의 브래지어가 가슴밑에 밴드로 처리되어 바스트 업 기능의 효과가 있었다.

2) 외의

브래지어의 트임부위를 고려하여 내측트임, 외측트임, 하단트임 외의의 세 종류와 일반적인 의복인 트임없는 외의를 착의실험 대상으로 사용하였으며, 네 종류의 외의를 임부와 수유부에게 착용케 한 후, 착용시의 편리한 점 및 불편한 점이나 느낀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트임없는 외의인 경우, 옷자락을 걷어 올려 수유를 하게 되면, 복부가 드러날 뿐 아니라 내의, 하의 등이 노출되고, 또한 수유 중에 걷어올린 부분이 유아의 얼굴위로 흘러내릴 수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상대방이 있거나, 외출 중인 경우 비스듬히 돌아앉아도 노출을 감추는 것이 어려웠다.

내측트임인 경우, 개폐하기가 쉬워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가 편리하였으며, 개폐부위가 보편적이어서 임부 및 수유부가 착의하기에 무난하였다. 그러나 유방과 복부의 노출이 많아 외출시나 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었다.

외측트임인 경우, 개폐부위가 겨드랑이 아래이므로 눈에 띄지 않고, 유방의 노출부분이 적어 유방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외출시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수유 중 트임부위가 아기의 얼굴에 닿을 수 있어 불편하였다.

하단트임인 경우, 개폐부위가 넓어서 유방을 드러내기가 용이하고, 트임의 위치가 보편적이어서 무난하였다. 그 외에 가슴부분이 겹쳐지므로 유두가 비치지 않고, 젖의 흐름도 감출 수 있어 좋게 평가하였다.

임부는 유방 또는 유두만을 노출시켜야 할 필요가 없으나, 트임없는 외의보다 내측트임이 착·탈의가 편리하였다. 외출시에는 하단트임을 선호하였는데, 가슴부분이 겹쳐지므로 유두점 등 가슴형태가 의복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아주며, 시선을 복부로부터 가능한 얼굴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미적인 디자인의 효과도 있었다.

3) 브래지어와 외의의 관련성

브래지어의 트임부위와 외의의 트임부위가 서로 관련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트임이 다른 브래지어와 외의를 각각 번갈아 가면서 2일씩 착용하고 수유를 실시하였다.

상단트임의 브래지어를 한 경우, 내측트임 외의를 착용하면,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는 편리하였지만, 복부가 노출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외측트임 외의를 착용하면 개구부가 좁아 유방을 드러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하단트임 외의를 착용하면, 개폐부위가 상반되므로 개폐가 어렵고, 유방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았다.

내측트임 브래지어를 한 경우, 내측트임 외의를 착용하면, 외의와 브래지어의 개폐가 용이하여 유방을 드러내기가 쉬워 편리하였다. 단, 수유시 유방과 복부의 노출이 심하고, 브래지어가 아기 얼굴에 닿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외측트임 외의를 착용하면, 개폐부위가 상반되므로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가 매우 불편하였다. 하단트임 외의를 착용하면, 외의의 개폐부위가 넓으므로 브래지어의 개폐가 용이하고, 유방을 드러내기 쉬우며, 드러난 유방을 외의로 덮어 은폐하기도 용이하였다. 외측트임 브래지어를 한 경우, 내측트임 외의를 착용하면, 개폐부위가 상반되므로 유방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다. 외측트임 외의를 착용하면, 개폐가 용이하고,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가 용이하였으며, 개폐부위가 상반신의 유방 측면이므로 유방의 노출이 적고, 외의로 노출된 유방를 은폐할 수 있었다. 하단트임 외의를 착용하면, 외의의 개폐부위가 넓으므로 개폐가 용이하고, 유방을 드러내기가 쉬우며, 드러난 유방을 외의로 덮어 은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외출시 또는 평상시의 상황에 따라 또는, 브래지어 트임부위와 외의 트임부위의 교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측트임 브래지어와 하단트임 외의를 착용한 것이 좋게 평가 되었다.

### 3. 설문조사와 착의실험 결과의 비교

설문조사와 착의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용 브래지어는 사이즈가 맞지 않고, 땀 흡수가 잘 안되며, 시판되는 임부용 브래지어는 바스트 업 기능이 약하고, 개폐부위가 불편하다고 하였다.

수유시 불편한 점으로는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와 유방 및 복부가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즉, 수유시 유방을 드러내기 쉬우면서도 유두 이외의 부분을 감출 수 있는 브래지어 및 임부복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임부복 트임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리하면, 임부용 브래지어는 내측트임을 선호하였고, 외의는 하단트임을 선호하였다. 또한, 내측트임을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도 내측트임을 선호하였고, 외측트임을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도 외측트임을 선호하였으며, 하단 트임을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는 내측트임을 선호하였다.

브래지어에 대한 착의 실험을 정리하면, 트임없는 브래지어의 경우, 땀 흡수가 좋지 않았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일반용 브래지어 착용시 불편한 점으로 지적한 '땀 흡수가 좋지 않다'와 일치하였다. 상단트임 브래지어의 경우, 개폐부위가 불편하고, 바스트 업 기능이 약하고, 브래지어가 아기얼굴에 닿는다고 하여, 임부용 브래지어 착용시 불편한 점으로 지적한 '개폐부위가 불편하다', '바스트 업 기능이 약하다', '브래지어가 아기얼굴에 닿는다'와 일치하였다. 내측트임과 외측트임 브래지어는 유방을 드러내기 쉽고, 바스트 업 기능이 강하며, 젖의 흐름이나 유두가 비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수유시 불편한 점으로 지적된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가 개선된 것이고, 임부용 브래지어 착용시 불편한 점으로 지적된 '바스트 업 기능'과 '유두의 비침', '젖의 흐름' 등의 불편한 점이 개선된 것으로, 내측트임과 외측트임은 수유에 적합한 브래지어의 트임부위로 볼 수 있다.

임부복에 대한 착의실험을 정리하면, 트임이 없는 외의는 수유시 복부의 노출과 옷이 아기에게 닿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였다. 이것은 설문조사에서 수유시 불편한 점으로 지적된, '복부와 유방이 완전히 드러남'과 일치하여 트임없는 외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측트임 외의는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는 편리하지만, 유방의 노출이 심하다고 하였고, 외측트임 외의는 유방의 노출은

〈표 7〉 설문조사와 착의실험 결과의 비교

| 내용 | | 설문조사 | 착의실험 |
|---|---|---|---|
| 임부복 착용실태 | 브래지어 착용시 불편한 점 | * 일반용 브래지어—사이즈가 맞지 않음, 땀 흡수가 안됨[a]<br>* 임부용 브래지어—바스트업 기능 약함[b], 개폐부위가 불편함[c] | |
| | 수유시 불편한 점 | * 유방 드러내는 절차[d]<br>* 복부/유방의 노출[e] | |
| 임부복 트임의 선호도 | 브래지어 트임 선호도 | * 임부/수유부—내측트임 | * 트임없음(일반용 브래지어)—땀 흡수가 안됨[f].<br>* 상단트임(시판 임부용 브래지어)—바스트업 기능 약함[g], 개폐부위가 불편함[h].<br>* 내측/외측트임 —유방을 드러내기 쉬움[i], 바스트업 기능 강화. |
| | 외의 트임 선호도 | * 임부/수유부—하단트임 | * 트임없음—복부노출[k], 옷이 아기에게 닿음.<br>* 내측트임—유방을 드러내기 쉬움[l], 유방노출이 많음.<br>* 외측트임—유방노출이 적음[m], 유방 드러내기 불편함.<br>* 하단트임—유방을 드러내기 쉬움[n], 유방/복부 감추어 줌[o]. |
| | 외의/브래지어 트임 선호도 | * 내측트임 외의—내측트임 브래지어<br>* 외측트임 외의—외측트임 브래지어<br>* 하단트임 외의—내측트임 브래지어 | * 외의 트임부위와 브래지어 트임부위가 서로 인접하면 편리, 어긋나면 불편함. |
| 비교 | * 일반용 브래지어의 불편한 점인 a는 트임없는 브래지어의 단점인 f와 동일하여 설문조사와 착의실험이 일 치하였음.<br>* 임부용 브래지어의 불편한 점인 b, c는 상단트임 브래지어의 단점인 g, h와 동일한 점으로 설문조사와 착 의실험이 일치하였음.<br>* 임부용 브래지어의 불편한 점인 b와 수유시 불편한 점인 d는 내측/외측트임 브래지어의 j, i가 개선되어 수유에 적합한 트임부위로 볼 수 있음.<br>* 수유시 불편한 점인 e는 트임없는 외의의 단점인 k와 일치함.<br>* 수유시 불편한 점인 d는 내측트임 외의의 l로 개선되었음.<br>* 수유시 불편한 점인 e는 외측트임 외의의 m으로 개선되었음.<br>* 수유시 불편한 점인 d, e는 하단트임 외의인 n, o가 개선되었으므로 수유에 적합한 트임부위로 볼 수 있음. | | |

적지만, 트임의 개구부가 좁아서 유방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고, 트임부위가 아기얼굴에 닿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측트임 외의는 유방의 노출을 꺼려하지 않아도 되는 평상시에, 외측트임 외의는 외출시에 효과적이었다.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은 하단트임 외의는 개폐부위가 넓어서 유방을 드러내기가 용이하고, 드러낸 유방을 감추기도 용이하여, 착용이 편리하다고 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하여 수유에 적합한 트임부위로 볼 수 있다.

트임부위를 달리한 외의와 브래지어를 교차시켜 착의실험한 결과, 브래지어 트임부위와 외의 트임부위가 서로 인접하면 편리하였고, 트임부위가 어긋나면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내측트임 외의를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도 내측트임을 선호하고, 외측트임의 외의를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도 외측트임을 선호하며, 하단트임 외의를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는 내측트임을 선호하여 외의 트임과 브래지어 트임이 일치하거나 인접한 것을 선호하는 것이 실제 착용에서도 편리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유에 적합한 임부복의 트임부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유를 위한 임부복의 트임에 관해 살펴보고, 수유가 용이한 임부용 브래지어와 외의의 트임을 분석하여 각각 네 종류의 트임을 선정하였다. 임부와 수유부 244명을

대상으로 네 종류의 트임부위의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 자료를 기술통계 및 $\chi^2$-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선정한 네 종류의 브래지어 및 외의를 제작하여 임부, 수유부 각 한 명에게 착의실험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임부용 브래지어의 트임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내측트임을 선호하였다. 착의 실험에서는 내측트임이 수유에 편리함을 알 수 있었다.

2. 임부용 외의의 트임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하단트임을 선호하였고, 착의 실험에서 하단트임이 수유에 편리하고 디자인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외의트임에 따른 브래지어트임의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내측트임 외의를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도 내측트임을 선호하였고, 외측트임 외의를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도 외측트임을 선호하였다. 또한, 하단트임 외의를 선호하는 경우, 브래지어는 내측트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외의의 트임 선호도에 따라 브래지어의 트임 선호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브래지어와 외의의 관련성을 착의실험한 결과, 브래지어 트임부위와 외의 트임부위에 따라 다르며, 외출시 또는 평상시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브래지어와 외의의 트임부위가 서로 인접하면 편리하였고, 트임부위가 어긋나면 불편하다고 하였다. 특히, 내측트임 브래지어와 하단트임 외의를 착용한 것이 좋게 평가 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자인 임부 및 수유부의 표본 프레임의 획득이 어려워 편의샘플 방법으로 설문대상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직업유무나 연령과 임부복 트임 선호변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구대상지역이 창원과 마산으로 조사지역을 넓혀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착의실험 대상자는 임부 및 수유부 각 한 명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로는 착의 실험에서 다양한 체형의 피험자를 선정할 것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착의 실험 기간이 여름이므로 춘추, 추동의 조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곽혜진(1987). 임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기본 스커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순(1992). 임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기본 슬랙스 원형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미향(1991). 의복설계를 위한 임부체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한간호협회(1996). 모유수유 실천의 중요성과 대책. 대한간호, 35(2), 25-34.

손희순(1991). 브래지어 및 거들의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희선 · 나미향(1994). 임신기간에 있어서 의생활 실태 조사연구. 밀양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 1, 109-120.

이경혜(1992). 국내 모유수유의 실태. 생활간호, 12, 114-116.

이은숙 · 서영숙(1996). 모유수유 강화교육 프로그램이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 간호학회지, 2(1).

이은영(1994). 임부복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정희 · 김여숙(1997). 국내 시판되는 임부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12), 97-118.

정경화 · 최혜선(1996). 임부용 브래지어 설계를 위한 유방의 변화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0(3), 438-451.

최광희 · 함옥상(1994). 임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원피스드레스의 기본원형 연구.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20, 139-156.

한겨레신문 편집부(1997년 8월 18일). 성공적인 모유 먹이기. 한겨레신문, p. 14.

山名信子 · 岡部和代 · 中野愼子 · 錢谷八榮子 · 齊田つゆ子(1984). 姙娠體型の姙娠過程に伴う變化. 日本人間工學, 20(3).

深作光貞 · 村田仁代(1994). 人體と裝い. 日本: 關西衣生活研究所.

膝田光子(1991). 姙娠婦の體格 · 體型 -より浪い姙娠婦服を求めて-. 日本: きうせい社.

田中道一(1994). 被服の運動機能性と快適性.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2(9).